동북권

• 동북권 소비경기지수는 (전년동월대비) 1.1% 상승

- 전년동월대비 +1.1% = 소매업의 기여도 +2.8%p + 숙박·음식점업의 기여도 -1.6%p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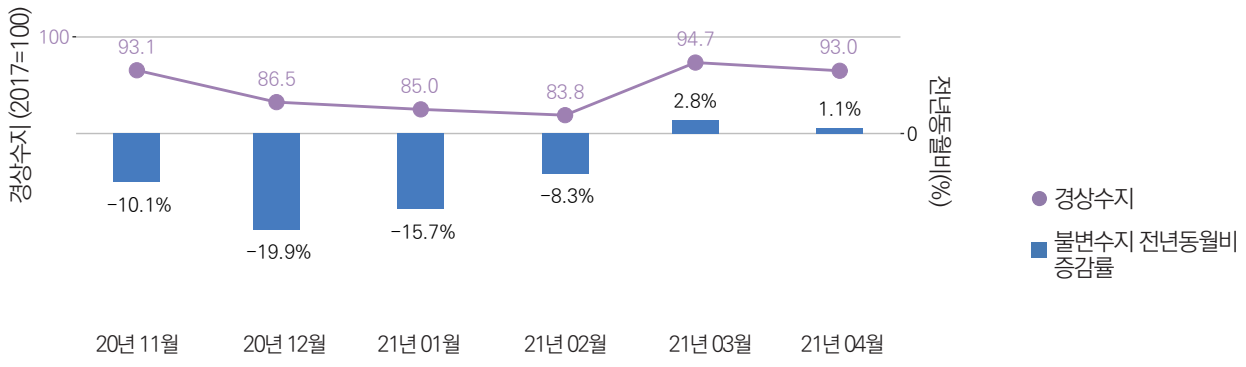
(각 업종별 기여도= 각 업종별 기여율 × 소비경기지수 증감률, 소비경기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)

관련 설명은 부록의 '기여도'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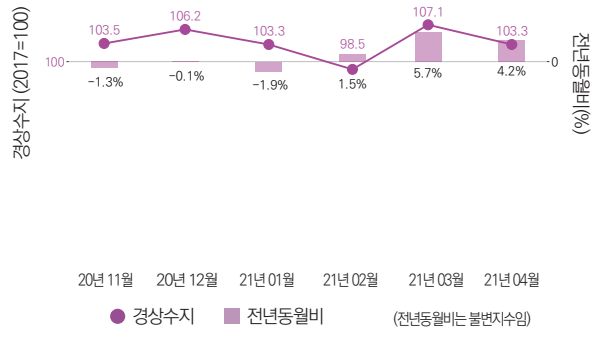
• (전년동월대비)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4.2% 상승,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4.8% 하락

- 동북권 소비경기지수는 전월에 이어 4월에도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오름폭은 줄고,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내림폭이 확대 되면서 동남권 소비경기지수 오름폭은 다소 둔화
- 무점포소매(22.1%), 의복·섬유·신발(17.7%), 문화·오락·여가(14.5%) 등의 소매업 일부 세부 업종이 (전년동월대비) 매출 증가를 나타내면서 4월 동북권 소매업 소비경기지수는 전월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감
  · 4월 동북권 소매업은 무점포소매, 의복·섬유·신발, 문화·오락·여가, 기타가정용품 등의 순으로 소비증가
  · 반면 연료, 종합소매 등의 순으로 소비감소
- 4월 동북권의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는 하락세를 지속. 3월 서울 권역 중 유일하게 감소를 나타냈던 숙박(-6.5% ⇨ 10.7%)이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되고, 주점·커피전문점(-4.5% ⇨ 0.0%)의 부진도 나아졌으나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음식점(-2.2% ⇨ -7.0%) 매출이 (전년동월대비) 크게 감소하면서 4월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내림폭이 다시 확대
  · 4월 동북권 숙박·음식점업은 숙박 소비증가, 반면 음식점은 소비감소

| 동북권 소비경기지수 |



| 동북권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|



| 동북권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|

